

노동정부 관련 소식

경인지방노동청 2006년 경인지역 산업안전정책방향

I. 산업안전업무 추진 방향

1. 찾아가는 종합행정 서비스 제공

가. 추진배경

그동안 사업주 교육이나 노동정책 홍보시 업무 시간에 사업주나 업무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집합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여도가 낮고 효과가 미미하였다.

나. 추진방법

(1) 건설현장 감독관 안전교육 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산업안전감독관이 공사현장 업무시작 10분 전에 출장하여 직접 근로자들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예고점검-집중지도 실시

가. 추진배경

적발위주의 사업장 점검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법사실을 숨기거나 적당히 넘기려하는 심리를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점검효과도 낮다.

나. 추진방법

(1) 행정목적이 적발이 아니고 사전예방에 있으므로 점검항목을 점검 전에 미리 알려주어 자율적

으로 개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① 점검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점검일 상당기간(1~2개월) 전에 점검내용을 미리 공문으로 고지하여 사업주가 위법사항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므로 사전 고지를 하였음에도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엄중 조치한다.

(2) 1회성 점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사업주 인식 전환을 위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적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별도 간담회를 실시한다.

3. 종합점검 시스템 가동

각 사업별로 점검시기가 달라 동일사업장을 중복점검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점검에 대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을 개선하여, 각 과 사업별 점검시기를 고려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대상 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동일 사업장에 다수 점검이 중첩될 경우 한날 동시에 One-Stop 점검을 실시한다.

II. 산업안전분야

인천지역 산업재해율(05년 0.99%)은 전국평균 재해율(05년 0.79%)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 중에는 제조업 생산시설 노후화, 화학·금속·목재가공업 등 재해 위험도가 높은 전통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인천공항, 송도신도시 개발 등 대형건설공사에 미숙련자 등 산재취약근로자가 유입됨으로써 추락 등 재래형 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그 일부분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기업체들의 안전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

1. 지역 밀착형 산재예방사업 추진

가. 산재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노동계, 학계, 경영계, 재해예방기관, 명예감독관 등 각계 전문가로 「산재예방 Net Work」를 구축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 ① 노동부 : 제도정비 및 법령에 따라 이행여부 등 조치
- ② 산업안전공단 :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서 기술지원 및 자문
- ③ 대행기관 : 산업현장에서 직접 재해를 줄이도록 업무수행
- ④ 노동계 :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건의 및 대안제시
- ⑤ 학계 : 제도 미비점 개선, 전문자료 제공 등

2. 산재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지도

전년도에 사망재해 발생, 작업환경 불량 및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한다.[불이행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

나. 산재취약 근로자 고용사업장 중점 점검
 도급업체【용역, 파견, 협력업체, 사내하청, 소사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재해발

생 및 다수고용 사업장, 고령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한다.

(1) 위험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안전보건조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2) 고령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단순반복 및 중량물 취급 작업시 안전조치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3.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가.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점검

(1) 화학물질 제조·사용업체,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등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2) 점검결과 범위반은 즉시 시정지시하고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감독관을 지정 책임관리한다.

나.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예방

(1) 근골격계 질환 발생 사업장은 유해요인 조사 등 사업주 의무이행여부를 조사하여 개선을 지시한다.

(2) 뇌심혈관계질환 다수 발생 및 고위험성 사업장(건물관리업, 운수창고, 건설 등)에 대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① 홍보캠페인 실시(남동공단, 간석지구, 송도·논현, 영종도 등)

② 뇌심혈관계예방 기술자료 개발 보급 및 교육 실시

4. 산재취약 사업장 재해예방 재정지원

가. 클린사업 지원

(1)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제조업 400여 개소

(2) 지원한도 : 최고 3천만원(주물·도금 업종



등은 최고 4천만원)

나. 고소음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원

(1) 소음 노출기준(90dB) 초과 사업장에 대해 소음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설비개선 등의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지원한다.

- ① 대상 :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 중 3개소
- ② 지원한도 : 5,000만원

5.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가. 법규 미준수자 조치 강화

(1) 사망재해 발생, 산재다발, 추락·낙하, 붕괴 등 위험상황 방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검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사법처리한다.

(2) 고의적인 산재은폐 사업장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3)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광주지방노동청

근골격계질환 없는 일터 만들기[골(骨)무(無)터] 조성 사업 추진

1. 추진 배경 및 목적

2005.11월말 전국 업무상질병 재해자수는 6,903명으로 전체 재해자수 77,409명의 8.9%를 차지하는 반면, 광주지방노동청 업무상질병 재해자수는 488명으로 전체 재해자수 2,676명의 18.2%를 차지하여 업무상질병 재해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특히, 업무상질병 재해자 488명 중 269명(55.1%)이 근골격계질환 재해자이다.

광주지방노동청 업무상질병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 재해자를 효과적으로 줄여 근골격계질환 없는 일터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업무상질병 및 전체 재해를 감소시키고자 골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 내용

가. 근골격계질환 예방팀 구성

(1)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

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골격계질환 다수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팀을 구성한다.

(2) 사전 관계자 회의를 거쳐 예방팀 구성을 확정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여 청장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사명감을 심어주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3)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협조 요청하여 예방팀원 전원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실무위원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나. 근골격계질환 예방팀 운영

(1) 분기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정책방향, 사업장별 감소실적 및 예방활동,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사항 등 의견을 교환하고 근골격계질환 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 예방팀 사업장과 여건이 비슷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방문 또는 전문가를 워크샵에 초청하여 근골격계질환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습득한다.

다. 근골격계질환 감소실적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1) 예방팀 사업장 중 전년 동기 대비 근골격계 질환 감소실적이 가장 우수한 사업장을 분기별로 1개소 선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예방팀원인 노사 각 1인에게 청장 명의의 포상을 실시한다.

(2)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하여 분기별 감소실적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예방팀원이 추천하는 1개 공정에 대하여 청장 명의의 포상을 실시하고, 사업장에 별도 포상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3) 반기별 1회 예방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감소실적을 분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감소시킨 사업장에 대하여는 검찰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라. 근골격계질환 진단 의료기관 합동점검

(1) 광주지방노동청 의사 사무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2) 근골격계질환 진단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지도점검 한다.


마.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1) 광주지방노동청 의사 사무관,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2) 년 1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대

상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

3. 성과지표

이행과제성과지표 및 06목표 주요평가기준/방식, 근골격계질환 재해 감소, 전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재해 감소, 전체 사업장의 전년 동기 대비 근골격계질환 재해감소 정도, 근골격계질환 다발 사업장 재해감소, 근골격계질환 다발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재해감소 해당 사업장의 전년 동기 대비 근골격계질환 재해감소 정도. 

서울지방노동청

『건설업체 Risk-Zero 프로그램』운영

서울지방노동청은 서울청의 지방분권적 산재예방 지역 특성화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2006년도 산재예방 역점 사업으로 건설업의 산업재해 Risk-Zero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건설업의 산업재해 Risk-Zero 프로그램은 건설업 재해로 인한 손실을 Zero에 접근시키자는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건설업 CEO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관 책임전담제, 재해발생 위험 경보제 실시와 건설업 본사 및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건설업 본사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지도·점검과 건설현장에 대한 지방노동관서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등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의 작년 전체업종 재해율은 0.31% (잠정)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재해 발생율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종의 재해율은 0.63%로 전국 평균재해율(0.52% 잠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